

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한 조사 ‘-로’의 통합적 연구*

정 병 철
(경북대학교)

<Abstract>

Jeong Byong-cheol. 2010. An Integrated Study of the Particle ‘-ro’ Based on Simulation Model. *Korean Semantics*, 32. This study is conducted to put the simulation based model of network in analyzing the particle ‘-ro’. The previous works of simulation based model has proved its adequacy in explaining the systematic structure of polysemous verbs. It draws particular attention whether this model could be applied to Korean particles. In traditional approaches, Korean particles are regarded as case-markers, and case marking to be purely grammatical elements devoid of semantic content. However, polysemy is the normal situation for both lexical and grammatical morphemes. And, in Cognitive Grammar, only symbolic units are required even for the description of grammatical structure. Therefore, the particle ‘-ro’ is also supposed to have the meaning network of polysemy which is grounded on the simulated experience, with corresponding constructions interacting with it. In conclusion, the semantics network of ‘-ro’ has turned out to have 8 extended meanings connected to one basic meaning, overall structure of which is parallel to the case of verbs. For the sake of authenticity, the result is attested by corpus data.

핵심어: 인지 문법(Cognitive Grammar), 시뮬레이션 모형(Simulation Model), 조사(particle), 격(Case), 문법형태(grammatical morpheme),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27-A00320)

의미망(meaning network), 구문(construction), 다의(polysemy),
기본의미(basic meaning), 확장의미(extended meaning)

1. 서론

이 연구는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조사 ‘-로’의 의미와 구문을 통합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교착어적 특성을 지닌 한국어의 조사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Fillmore(1968)의 격(Case) 개념이 도입되면서 조사를 격표지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는데(김영희 1974), 이러한 접근 방식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조사에 대한 연구 풍토를 사실상 지배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민현식 1982, 임홍빈 1987, 이남순 1998, 최재희 1999, 홍기선 1994, 최동주 1997, 임동훈 2002). 한편, 고석주(2004)에서는 한국어의 조사가 격표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인지문법의 창시자 Langacker(2002: 234-235)는 ‘격(case)’이 의미가 들어 있지 않은 순수한 문법적 구성소라는 전통적인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추상성의 정도가 다를 뿐 소위 문법형태소라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어와 목적어는 각각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에 의해 1차적 주의와 2차적 주의를 받는 대상으로 설명된다(Langacker 2009: 8-10). 의미가 없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와 형태가 결합된 상징적 체계만이 언어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Langacker(2002: 235)는 또한 어휘 형태소 뿐만 아니라 문법 형태소에도 다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다의성’은 사소한 속성이 아니며, 심리적 실체성을 가진 의미 구조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과 맞물려 발생한 체계이다.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문법 형태소에 다의적 체계가 있다는 언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사에 대한 분류적 접근 방식을 벗어나 각각의 조사가 가진 다의적 체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 의미가 ‘구문(construction)’과 어떻게 상호작용하

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이미 동사의 의미망 분석에 적용된 바 있는 시물레이션 모형(정병철 2009)을 조사 ‘-로’의 의미망 분석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시물레이션 모형은 기존의 의미망 분석 방식이 노출했던 심리적 실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정말 보편적으로 설명력 있는 모형이라면 동사 이외의 다른 범주에도 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은 조사 ‘-로’의 의미와 구문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문(constructions)’은 ‘신체화된 의미 구조(embodied semantic structure)’와 묶여있는 심리적 단위로(Bergen & Chang 2005: 185), 언어를 이해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준다. 따라서 ‘-로’의 시물레이션 과정과 ‘-로’를 포함한 구문의 시물레이션 과정을 분리해서 다룬다면 통합적인 설명이 되기 어렵다. 인지문법과 ECG(Embodied Construction Grammar)의 관점에 따라 이 글에서는 언어 단위의 의미와 구문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Langacker 2005, Bergen & Chang 2005).

‘-로’의 의미와 구문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그 둘을 분리해서 연구한 것의 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지언어학이 말하는 언어는 상징적 체계이다. 그러므로 언어 단위의 의미와 형식, 문법 등은 통합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인지적인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어느 한쪽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 ‘-로’의 의미와 구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선명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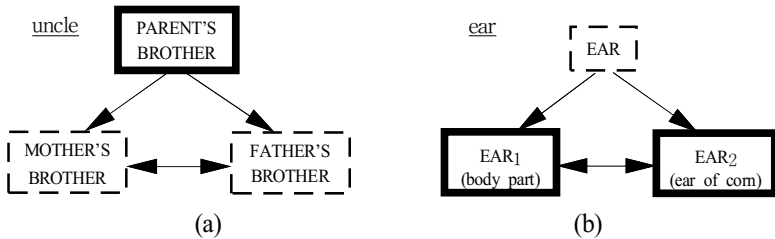
분석을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로’의 예문과 21세기 세종계획 사이트에서 100개의 예문을 선정하여 기본 말뭉치로 사용하였고, 기본 말뭉치에 없는 용례는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된 것을 사용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장에서는 시물레이션 모형에 기초한 의미망의 분석 방법이 간략히 제시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로’의 기본의미와 확장의미가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각각의 의미가 구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의미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기본 말뭉치 자료에 대한 설명력을 점검하며 글을 맺는다.

2. 시뮬레이션 모형에 기초한 의미망 분석 방법1)

Langacker의 ‘인지문법(CG; Cognitive Grammar)’에서 중심적인 축을 이루는 ‘망 모형(network model)’은 ‘연합’, ‘자동화’, ‘도식화’, ‘범주화’와 같은 일반적인 인지 능력만으로 실제 사용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에 대해서도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다2).

먼저, 망 모형은 언어 해석의 ‘모호성(vagueness)’과 ‘중의성(ambiguity)’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예컨대, (1a)를 ‘Tom에게는 삼촌이 있고 Bill에게 외삼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1b)를 ‘Tom에게 두 개의 귀가 있고, Bill에게 두 개의 옥수수 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uncle*의 경우 <그림 1a>와 같이 ‘parent’s brother’가 고착화되어 있고 성별의 구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호성을 유발하는 반면, *ear*의 경우 <그림 1b>와 같이 ‘body part’와 ‘ear of corn’이 모두 독립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어 중의성을 유발하는 것이다(Langacker 2002: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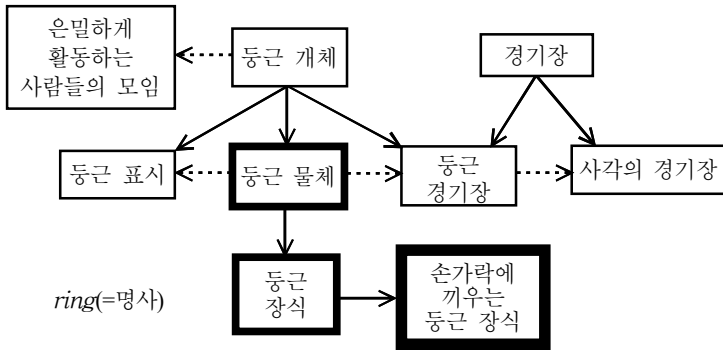
- (1) a. Tom has an uncle, and Bill does too.
- b. Tom has two ears, and Bill does too.



<그림 1> *uncle*과 *ear*의 의미망(Langacker 2002: 270)

- 1) 이 연구는 정병철(2009), 정병철(2010)에서 동사에 적용되었던 이론적 틀과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므로, 이 장에 소개되는 내용 중 앞의 연구와 크게 다른 것은 없다. 다만, 몇 가지 새로운 발견과 설명을 추가하면서, 3장의 분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병철(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 2) 인지언어학은 언어 구조가 지각, 기억, 범주화 등의 기본적인 인지 체계를 끌어다 쓰고 있으며, 그것과 구분되는 모듈이나 정신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인지문법은 인지언어학의 취지에 잘 부합하는 언어 이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망 모형은 또한 모든 언어 단위에 편재하는 다의성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실제로, <그림 2>에 제시된 의미망은 *ring*의 다의성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보여 준다. *ring*의 전체 의미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미 단위들이 서로 동음이의어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심리적 연관관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망 모형은 각각의 의미 단위들이 국부적인 원형들이 확장, 정교화, 도식화 등의 방식을 통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적절하게 표시해 준다. 또한 선의 굵기와 길이로 ‘고착화(entrenchment)’의 정도와 의미상의 거리를 표시하여 심리적 실제에 대한 기술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그림 2> 명사 *ring*의 의미망(Langacker 2002: 3)

하지만, Langacker의 모형은 극히 제한된 어휘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며, 또한 망 모형을 적용한 연구자들의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불일치는 직관에 의존하는 연구 경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론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Langacker(2002: 271)는 의미 확장의 기제로 ‘유사성(similarity)’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동사나 전치사와 같은 ‘관계성(relationship)’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에 속하는 어휘의 의미 확장 방식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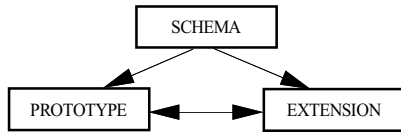
Tyler & Evans(2004)의 의미망 분석 방식을 보완한 정병철(2009)에서는 ‘경험적 동반성(experiential accompaniment)’이 동사와 같은 ‘관계(relationship)’ 범

주의 주된 의미 확장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에는 동사 ‘먹다’의 의미망을 구성하는 확장의미들이 제시되어 있다. ❶~❺와 같은 확장 의미들은 ‘먹는 행위’에 동반되는 경험이 장기 기억에 자리 잡으며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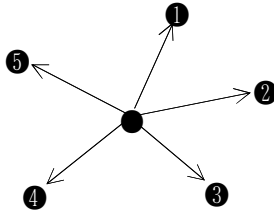
확장의미 (동반경험)	해당 예문들
❶ 속으로 들여보내다	연탄가스를 먹었다. / 실리카겔은 습기를 먹으면 도화색으로 변색된다. / 또 한 골 먹었다. / 센 주먹을 한 방 먹었다.
❷ 자기 몫으로 차지하다	엄마도 여학교 때 교내 콩쿠르에서 일 등 먹었잖아요. / 황영조가 마라톤에서 1등을 먹었을 때 / 우리 반이 1등을 먹었다.
❸ 욕심을 채우다	공무원이 뇌물을 먹고 주택 개발 정보를 흘렸다. / 남은 이익은 모두 내가 먹어라. / 한나라당이 먹은 돈은 통상 원단위로 발표하고 야당이 먹은 돈은 통상 달러로 발표한다.
❹ 경험하다	신호 위반으로 벌점을 먹었다. / 그녀는 어머니님의 입원 소식에 쇼크를 먹었다. / 겁을 잔뜩 먹었다. / 시위 가담으로 구류를 먹었다.
❺ 내재화하다	그녀는 그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 아이들은 사랑을 먹으며 자라났다.

<표 1> ‘먹다’의 의미망 (정병철 2009: 224)

Langacker(2002)가 제안한 <그림 3>과 같은 의미 확장 모형은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은유를 통해 의미가 확장될 때는 <그림 3>처럼 원형과 확장을 연결해주는 상위의 ‘도식(schema)’이 발생하지만, 환유에 의해 의미가 확장될 때는 유사성이 아닌 동반 경험을 통해 의미가 확장되므로 상위도식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4>에 제시된 ‘먹다’의 의미망이 기본의미 <●>가 중심에 놓인 방사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도식의 위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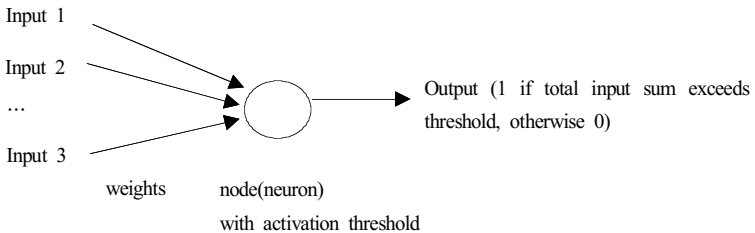


<그림 3> 의미 확장 모형(Langacker 2002: 271)



<그림 4> ‘먹다’의 의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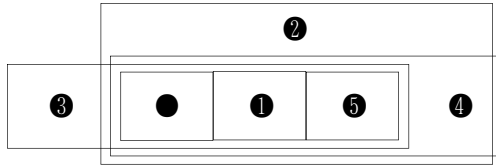
Pavlov(1927)의 조건 반사에 대한 연구도 고전적이긴 하지만 동반경험에 기반한 의미 확장의 심리적 실제성을 뒷받침해 준다. Kourtzi & Kanwisher(2000)는 실험참가자에게 운동선수가 곧 공을 던질 것 같은 자세를 한 사진과 두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전자의 경우에만 움직임을 처리하는 시각 관련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여기에서 골자는 하나의 조건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은 그에 동반되는 다른 경험과 결속된다는 것이다. ‘신경망 모형(neural network modeling)’의 하나인 ANN(alternative, artificial neural) 망 모형에서 제시하는 <그림 5>의 신경 모형도 같은 맥락에서 인용될 수 있다. 이 모형은 수리-전산 처리에도 적합하지만 신경 체계의 뉴런 세포가 다른 뉴런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도 실제와 흡사하게 보여준다. 만약 어떤 연결 부위에서 흥분이나 억제 신호가 충분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새로운 연결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림 5> ANN의 formal neuron (Ahlsén 2006: 170)

<그림 6>은 2.1에서 본 ‘먹다’의 확장의미들이 어떤 동반 경험에서 발생했

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먹다’의 활성화 영역 간의 포함 관계

<1>은 <2>에 직접적으로 동반되며, <5>는 <1>을 사이에 두고 있긴 하나 ●에 가깝게 동반된다. 그리고 <2>, <3>, <4>는 <2>, <1>, <5>의 전 과정을 포함하면서 <2>에 동반된다. 이와 같은 의미 확장은 반복적으로 동반되는 경험이 자동적으로 묶여 한 번에 활성화(혹은 시뮬레이션)되는 것이 가능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언어의 처리 과정에 전적으로 신체의 모의 체험이 관여한다는 입장이고(Narayanan 1997, Barsalou 1999, Glenberg & Robertson 2000, Bergen 외 2003), 다른 하나는 ‘신체적 경험이 아닌 상징(amodal symbol)’의 표상이 범주화와 추론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사고 과정에 관여한다는 입장이다³⁾(Anderson 1976, Newell 1990, Newell & Simon 1972 참조). 하지만, 전자에 속하는 ‘시뮬레이션 의미론(simulation semantics)’이 점점 더 많은 경험과학적 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후자를 뚜렷하게 지지해주는 연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Barsalou 1999 참조).

시뮬레이션 의미론의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두뇌에 나타나는 ‘거울 활동(mirror activity)’ 패턴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원숭이에게는 특별한 움직임을 수행할 때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울 신경(mirror)’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원숭이나 사람이 같은 움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할

3) ‘생각의 언어(language of thought)’가 단어에 해당하는 ‘개념적 원소(conceptual primitive)’와 통사론에 해당하는 합성 원리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Fodor(1979)의 언어관이 이런 입장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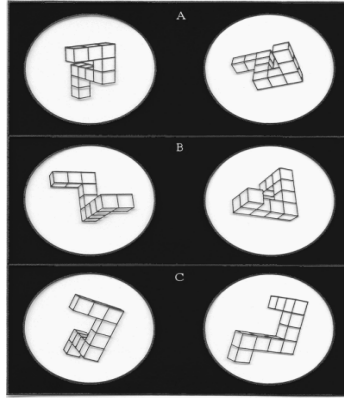
때에도 활성화 된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거울 신경이 국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 걸친 ‘거울 활동’의 패턴이 이를 대신한다 (Tettamanti 외 2005, Buccino 외 2001). 이런 근거로 언어의 처리 과정도 이와 같은 모의 체험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 시물레이션 의미론의 입장이다. 광범위하고 정교하게 발생하는 거울 활동이야말로 인간의 복잡한 사고와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이거나 그 결과일 것이다.

정병철(2009), 임지룡·정병철(2009)에서는 시물레이션 의미론을 적용하여 장기기억에 저장된 독립된 의미와 즉석에서 발생하는 맥락 의미를 구분하는데 적용하였다. 만약 즉석에서 시물레이션이 가능한 것이라면 굳이 장기기억에 저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원리이다. 이로써 너무 많은 의미 마디를 설정하는 다의성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독립된 의미 단위 판정의 원리” (임지룡·정병철 2009: 206)

- (i) 시물레이션을 통해 B가 A와 같은 범주로 인식된다면 B는 A와 독립된 의미가 아니다.
- (ii) 시물레이션을 통해 B가 A와 같은 범주로 인식될 수 없다면 B는 A와 독립된 의미이다.

(ii)의 독립적인 의미가 발생하는 과정은 이미 ‘떡다’의 예를 통해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i)에서 말하는 맥락의미로 넘어가 보자. 시물레이션을 통해 동일 범주를 확인하는 과정은 Shepard & Metzler(1971)의 실험에서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림 7>에서 왼쪽의 그림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지를 물었을 때, 왼쪽의 그림을 오른쪽 그림에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회전각과 문제를 푸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그림 7> Shepard & Metzler(1971)이 사용한 그림의 일부

이처럼 맥락 의미는 기본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 맥락에 주어진 정보만을 활용해서 도출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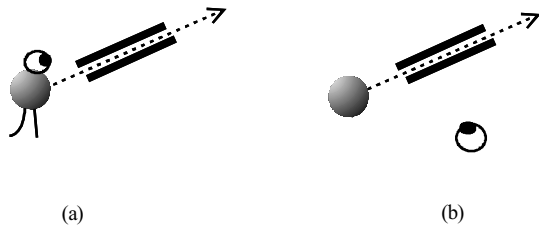
3. 조사 ‘-로’의 의미와 구문

우리는 인지과학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동사와 같은 ‘관계’ 범주의 의미망을 분석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문법범주에 따라 핵심적인 의미 확장의 기제가 달라지는 이유는 문법범주에 따라 주의의 선택을 받는 대상의 속성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임지룡·정병철 2009). 명사는 ‘사물’에 윤곽을 부여하는 범주이므로, 사물의 고정된 속성에 주의가 할당되는 반면, 동사는 ‘변화하는 관계’, 즉 사건에 윤곽을 부여하는 범주이므로 역시 동반되는 ‘관계’나 ‘사건’에 주의가 할당된다. 따라서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로’의 의미망 역시 동사와 비슷한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로’의 의미망을 구성하는 확장 의미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고, 그와 상호작용하는 구문들의 특성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기본 의미: [경로]

<그림 8>에서 윤곽 표시된 경로는 ‘-로’의 기본의미를 나타낸다. ‘-로’의 기본의미를 [경로]로 보는 이유는 이것이 전체 의미망이 발생하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정병철(200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동반경험을 통해 발생한 확장의미들은 공통된 하나의 기본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뒤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하나의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형성된 의미망 구조는 인지적 효율성을 높이고 기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적합하다.

Tyler와 Evans(2004: 47)는 잠정적이라는 전제 하에 *over*의 기본의미(그들의 표현으로는 ‘일차적 의미(primary sense)’)를 정하는 몇 가지를 기준을 제안한 바 있다. 그것은 (1)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 의미, (2) 의미망에서의 지배적인 분포, (3) 합성형태에서의 사용, (4) 다른 공간 불변화사와의 관계, (5) 문법적 예측력 등이다. 하지만, 그들이 잠정적이라고 말했듯이 이 모든 증거들이 빠짐없이 수렴되어 하나의 윤곽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의미의 역사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 의미와 심리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기본의미가 일치하기를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른 확장의미들이 장기기억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을 기본의미로 보고, [경로]를 ‘-로’의 기본의미로 정하였다. 물론, [경로]가 기본의미라는 것은 전체적인 분석이 끝난 후에 내려진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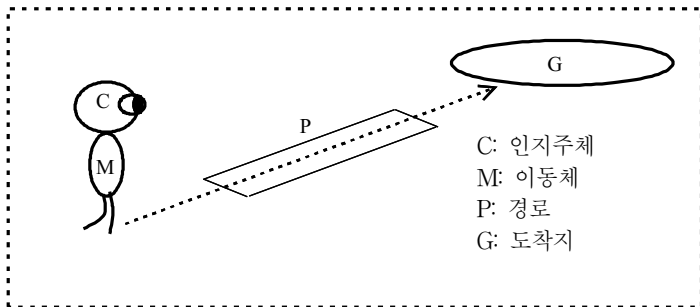


<그림 8> ‘-로’의 기본 시물레이션 영상

<그림 8>에서 기본의미의 시물레이션 영상을 두 개로 제시한 것은 신경의

거울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둘 중에서 <그림 8(a)>이 인지주체의 직접적인 경로 이동이라면 <그림 8(b)>는 인지주체가 관찰하는 대상의 경로 이동이다. 두 영상이 나타내는 경험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지만, 전자는 후자를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동원되는 관계에 있다. 이는 내가 직접 레몬을 먹지 않아도 그것을 먹는 사람을 보면 침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신경의 거울 활동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제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9>는 ‘-로’의 기본의미를 나타낸 <그림 8(a)>의 ‘바탕(base)’이 된다. <그림 9>에는 Talmy(1985: 61)가 제안한 이동 사건 틀의 여섯 가지 요소들 중 ‘방식’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Talmy(1985: 61)는 ‘이동 사건 틀(motion event-frame)’이 ‘전경(figure)’, ‘배경(ground)’, ‘경로(path)’, ‘이동(motion)’, ‘방식(manner)’의 여섯 가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동의 방식은 ‘-로’의 의미와 연관되지 않아 <그림 9>에 포함되지 않았다. Johnson(1987)은 SPG(Source-Path-Goal)라는 영상도식을 제안했는데, 이 역시 인간의 감각운동경험이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경험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방향성 이동(directed motion)’의 경험은 이처럼 인간에게 매우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것이기에 ‘-로’와 같은 문법적인 형태소의 출현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 하겠다.



<그림 9> 이동사건의 시뮬레이션 영상

<그림 8>이나 <그림 9>와 같은 표상 방식은 언어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신체화된 인지의 시뮬레이션을 보다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고안되었다.

Johnson(1987)의 영상도식이나 Langacker(1987, 1999, 2008)에서 제시하는 영상에는 신체가 빠져있으며, 또한 <그림 8>이 반영하는 신경의 거울 활동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물레이션 영상을 사용하면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의 신경에 거울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8(a)>이나 <그림 9>의 인지주체에는 팔이 없고 다리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동 사건에 팔의 역할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물레이션 영상은 적절한 추상성을 가진 도식으로 제시되지만, 맥락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교화 될 수도 있다(정병철 2009).

기본의미로 사용된 ‘-로’가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구문은 (2)에 보이는 [NP_{주어} NP로 VP_{이동동사}]의 형태이다. 하지만, ‘-로’가 [경로]로 사용되는 예는 매우 드물다. (2)는 모두 이 연구의 기본 말뭉치가 아닌 인터넷에서 검색된 것들이다. 그런데, (2)에서 ‘-로’가 [경로]와 [방향] 사이에서 모호하게 해석되며, 목적어가 빠졌다는 느낌도 든다.

- (2) a. 범인이 뒷길**로** 빠져나갔다.
- b. 쓰고 난 물은 하수도(클로아카)**로** 빠져나갔다.

이 연구의 기본 말뭉치에 들어있는 100개의 용례 중에 [경로]로 사용된 것은 새 개박에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3)처럼 가상이동을 나타내는 문장이며, (2)와 마찬가지로 [경로]+[방향]의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이다.

- (3) 불쭉불쭉 솟은 산들 사이**로** 그득히 푸른 물을 머금은 채 절경을 이루는 충북 충주와 제천 지역의 충주호는 ‘인간’들이 댐으로 물길을 막아 만든 인공호수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4)와 같이 [NP로 VP_{이동동사}]가 아닌 [NP를 VP_{이동동사}]를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 (4) a. 퇴계 오솔길**을** 걸어 봅시다.
- b. 달무리와 함께 이 오솔길**을** 걸어 보시겠어요?

c. 낙엽 지는 오솔길을 걸어 보셨는지요?

이런 현상은 tr/lm의 조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Langacker(2009: 10)에 따르면, 윤곽부여된 관계에서 tr(trajector)는 주어가 되고 lm(landmark)는 목적어가 된다. 이 때, tr은 가장 강한 주의를 받는 요소이고, lm는 두 번째로 강한 주의를 받는 요소이다. 따라서 사건 참여자 중 두 번째로 주목을 받는 ‘오솔길’이 목적어가 되어 ‘-를’과 결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오솔길’은 [경로]라기보다는 tr의 힘이 작용해서 사라지는 지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물체 A가 경로 B를 통해 C를 향해 가고 있다면, 두 번째 강한 주의를 어디로 쏠리겠는가? 당연히 B가 아닌 C일 것이다. 공을 받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의 경로보다는 낙착점에 더 주의하게 된다. 따라서 한 문장에 두 번째 주의를 받는 다른 요소가 있다면, [경로]의 ‘-로’는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5)는 [NP(tr)_{주어} NP로 NP(lm)_{목적어} VP_{이동동사}] 형태의 예문들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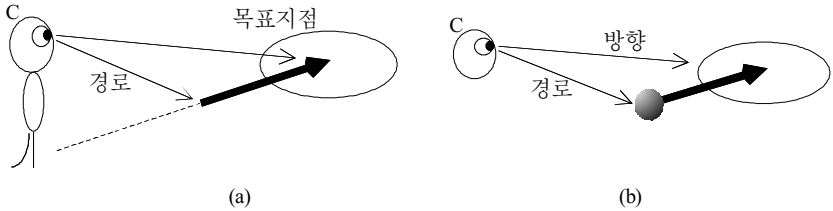
- (5) a. 스킵워드는 비밀통로로 감옥을 빠져나왔다.
 b. 새로 만들어진 통로로 중죄인 감옥을 들어가 보는 순례단

3.2. [목표지점/방향]

<그림 10(a)>와 같이 C(Conceptualizer: 개념화자)가 [경로]로 이동하는 경험은 [목표지점]에 대한 경험과 동반된다. 또한, <그림 10(b)>에서 C는 운동체가 [경로]를 생성할 때 그것의 [방향]도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목

4) 한 심사위원님께서 ‘-로’가 사용되지 않는 “그가 산길로 학교-에/*로 갔다”와 같은 경우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물으셨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터넷에서는 위와 같은 예문은 찾기 어렵고 “산길을 걸어 학교에 갔다”와 같은 복합문이 주로 검색된다. 이것은 본문에 설명된 같이 ‘-을’의 실현에 대한 인지적인 압력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목적지 ‘학교’가 경로보다 더 많은 주의를 받으므로, ‘산길’에 ‘-로’가 결합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로’가 한 문장에 두 번 나오는 것은 중의적 해석(의미적 요인), 같은 형태 반복에 대한 회피(음성적 요인), 활성 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간섭 효과(생물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꺼려지는 것 같다.

표지점]과 [방향]은 모두 [경로]에 동반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이며, [방향]은 신경의 거울 활동을 통해 [목표지점]의 경험을 동원할 수 있다. 이처럼 [목표지점/방향]과 [경로]의 동반관계는 일상적인 경험과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 속에서 강화된다.



<그림 10> [목표지점/방향]의 시물레이션 영상

[목표지점/경로]는 [경로]와 동반성이 높은 만큼 의미적 상관성도 높다. 따라서 ‘-로’가 [목표지점/방향]을 의미하는 경우 어느 정도 [경로]의 의미를 포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6)에서 ‘산골짜기’는 [목표지점/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경로]로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도 [목표지점/방향]과 [경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6) 산골짜기**로** 걸어가자.

(7a)에서는 ‘-로’가 [목표지점/방향]과 [경로]를 모두 활성화하는 데 적합하게 사용되지만, (7b)에서는 ‘-에’가 사용되어 어색하다. 또, (8)에서도 ‘이전하다’라는 단어에 의해 [경로]가 활성화되어 ‘-로’가 적합하게 사용된다.

(7) a.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

b. *전류는 음극(-)에서 양극(+)**에** 흐른다

(8) a. 한림미술관이 서울**로**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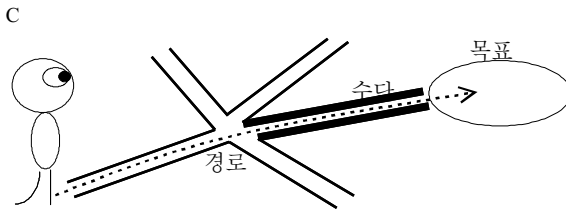
b. *한림미술관이 서울**에** 이전했다.

(6)-(8)은 [목표지점/방향]의 ‘-로’가 자동사 구문인 [NP로 VP_{이동동사}]나 [NP에서 NP로 VP_{이동동사}]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9)에서는 [NP을 NP로 VP_{대상이동동사}], [NP에서 NP을 NP로 VP_{대상이동동사}] 같은 타동사 구문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

- (9) a. 바람피우는 남편(을) 빨리 하늘로 보내는 방법
- b. java에서 chart정보를 excel로 보낼 때요.

3.3. [수단/도구]

목표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알맞은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그림 11>에서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목표와 연결되는 경로만이 그것에 도달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경로]가 [수단]이 되는 경험의 반복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마디가 발생하는 토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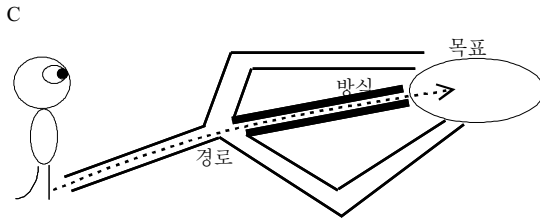
<그림 11> [수단/도구]의 시뮬레이션 영상

(10a)에서는 목표를 가진 행위자가 ‘연기’를 수단으로 ‘캐릭터를 담아내는’ 목적을 성취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수단/도구]의 ‘-로’는 타동사 구문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실현될 수 있다. 목적은 목적어와 같은 하나의 성분으로 나타나지 않고 문장 전체의 내용 속에 들어 있다. (10b)의 [NP1_{목적어} NP2로] 구문에는 [수단/도구]와 3.5에 설명되는 [자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토대(NP2)’는 ‘일대개혁’의 [수단]임과 동시에 ‘정부조직평가(NP1)’의 [자격]이기도 하다.

- (10) a. 난 새로운 캐릭터를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의 연기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 b. 현재 진행 중인 정부조직평가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일대개혁이 있어야 한다.

3.4. [방식]

<그림 12>는 <그림 11>과 약간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11>에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단 하나의 경로를 선택해야 하지만, <그림 12>에서는 어떤 경로를 선택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선택한 [경로]는 [수단/도구]보다는 [방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운전을 하고, 커피를 타고, 쇼핑을 하는 등의 행위에는 개인의 취향과 방식이 있다.



<그림 12> [방식]의 시뮬레이션 영상

(11)의 예에서 밑줄 그은 부분들은 모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방식] 중 하나를 나타낼 뿐이다.

- (11) a. 오늘은 다른 길로 가 봐야지.
- b. 그는 큰 소리로 떠들었다.
- c. 팔다 남은 물건을 엿가로 팔았다.
- d. 입장권을 한 사람 앞에 두 장 꼴로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수단/도구]와 [방식]의 사이에는 분명하지 않은 경계 지점이 존재한다. 목표가 없다면 모를까,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경로가 얼마나 많아야 [방식]이 되는지 꼬집어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반 경험의 유사성으로 인해, [수단/도구]와 [방식]이 구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12)의 경우 창덕궁, 석굴암 등의 소재가 작품을 그렸은 방법인지 방식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12)에도 3.5에 설명되는 [자격]의 의미와 [NP1_{목적어} NP2로] 구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 (12) 창덕궁, 석굴암, 종묘, 수원화성, 고인돌, 경주남산, 팔만대장경 등 8개 세계문화유산을 소재로 김화백이 26년간 그렸은 작품이 처음 공개된다.

3.5. [자격]

행위자 자신이 [수단/도구]이나 [방식]이 되는 경우 [자격]의 의미가 발생한다. 예컨대, (13a)에서 ‘그 여자’는 ‘현모양처’라는 [수단/도구], 혹은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는데, 이 때, 그 [수단/도구]는 바로 ‘그 여자’ 자신이다. ‘로’가 행위자의 자격을 나타내는 (13)의 예들은 모두 [NP1_{주어} NP2로…] 형태의 구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14a)에서 ‘나’는 행위자 자신이자 행위의 대상이며, 동시에 제사라는 목적의 [수단/도구]이기도 하다. 이런 예를 통해서 [자격]의 의미가 [NP1_{목적어} NP2로…] 형태의 구문으로도 실현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고착화된 용법은 (14b)와 (14c)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타이틀’은 전시회가 열리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자격]의 ‘-로’는 다른 확장 의미인 [수단/도구]나 [방식]의 용법 중 일부가 고착화되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물레이션 영상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구문의 형태도 외관상 [수단/도구]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자격]의 ‘-로’는 [NP1_{주어} NP2로…]나 [NP1_{목적어} NP2로…]의 구문을 이룬 후에 전체 구문에 함유하며, NP1과 NP2는 동격의 관계라는 제약이 있다. (여기서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순의 변화는 구문의 규칙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NP1_{주어} NP2로…], [NP1_{목적어} NP2로…]는 (13c)와 같은 관형 구문이나 (14c)와 같은 수동 구문에 어순이 바뀌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NP1과 NP2의 의미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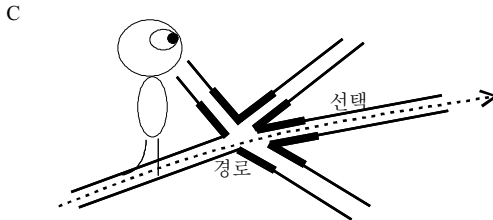
- (13) a. 그 여자는 현모양처로 가정을 지켰다.

- b.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 c. 프로이드 학파의 심리학자로 정신분석학적 기법을 역사, 사회, 집단에 적용하는 문명비평가 일본인 기슈다 슈는...

- (14) a. 나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 b. ‘세계문화유산 테마 설화 대전’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열었다.
 - c. ‘세계문화유산 테마 설화 대전’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3.6. [선택/결정]

길을 간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다. 길이 갈라질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3>은 [경로]에 동반되는 [선택/결정]의 상황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선택]의 시물레이션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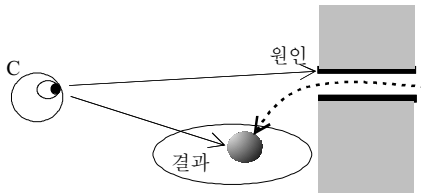
(15)는 ‘-러’가 [선택/결정]으로 사용된 예문들이다. [선택/결정]의 ‘-러’는 기본적으로 [NP1_{목적어} NP2로 VP_{선택/결정}] 형태의 구문과 상호작용하는데, 이 구문에는 ‘선택’이나 ‘결정’의 프레임과 연관된 동사들이 사용된다는 제약이 있다. (15a)의 ‘손꼽다’와 (15b)의 ‘결정하다’는 윤곽부여된 단어의 의미 속에 [선택/결정]이 들어있지만, (15c)의 ‘약속하다’와 (15d)의 ‘추천하다’는 단어가 속한 상황의 프레임 속에 [선택/결정]이 들어있다. 한편, (15e)의 ‘여기다’는 [선택/결정]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가 ‘나’를 바보로 여기는 판단에는 선택이나 결정이 개입된다. [선택/결정]의 의미가 약한 동사들이 사용

된다는 사실은 [NP1_{목적어} NP2로 VP_{선택/결정}] 구문 자체에 [선택/결정]의 의미가 들어있으며, 구문과 동사의 의미는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15) a. 많은 이들이 맛의 향구 ‘미항(味港)’**으로** 손꼽는 흥성 남당항.
- b. 오늘 점심은 중국집**으로** 결정!
- c. 꼭 서로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했지요.
- d. 창경궁과 식물원을 촬영지**로** 추천합니다.
- e. 그는 나를 바보**로** 여긴다.

3.7. [원인]

[원인]의 의미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제방에 구멍이 뚫려서 홍수가 나거나 성문이 열려서 성 전체가 함락되는 상황에서 물이나 적군이 침투하는 [경로]는 결국 홍수가 나고 성이 함락되는 [원인]이 된다.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그림 14>에서, 분리되어 있는 두 공간 사이를 이어주는 [경로]가 없다면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인자(因子)는 이동할 수 없고 아무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14> [원인]의 시뮬레이션 영상

‘-로’가 [원인]으로 사용될 경우 (16)과 같은 [NP1_{주어} NP2로...] 형태의 구문이 사용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구문의 조직은 인지주체가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관찰자인 <그림 14>의 상황을 통해 예견되는 바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어순의 변화에 대한 구문의 제약은 약하며, ‘말미암아’, ‘인하여’가 인과성을 강조하는 (16d)와 (16e)같은 예도 관찰된다. 이것은 [-로 말미암아], [-로

인하여]가 [NP1_{주어} NP2로...]와 결합하여 구성된 또 하나의 구문으로 볼 수도 있다.

- (16) a. 이번 겨울에는 감기로 고생했다.
- b. 갑작스러운 폭우로 농작물이 떠나려갔다.
- c. 이 고장은 사과로 유명하다.
- d.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났다.
- e. 오해로 인하여 싸움이 벌어졌다.

3.8. [시간 경과]

지금까지 ‘로’의 기본의미가 이동 사건 틀 속의 [경로]를 나타내며, 이동 사건 중 경로에 에 동반되는 경험들이 의미 확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지금 살펴볼 [시간 경과]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경로를 이동하는 중에 시간도 언제나 함께 경과한다. 대개 지나온 경로의 길이와 경과한 시간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사실 [시간 경과]만큼 언제나 [경로]에 동반되는 경험도 없다. 다만,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아 잘 의식되지 않는 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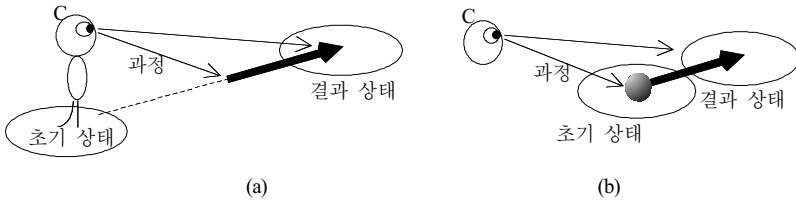
따라서, [시간 경과]의 ‘로’를 해석할 때는 탄도체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주사(mental scanning)’가 이루어진다(Langacker 2008: 108-112). 그런데, 경로를 어떤 지점에 ‘접지(grounding)’해서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신적 주사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길 위에서 길을 바라볼 수도 있고, 길 밖에서 길을 바라볼 수도 있다. 또, 길 위에서 길을 바라볼 때 출발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지나온 길을 바라볼 수도 있고, 현재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볼 수도 있다. (17a)에서는 광주에 온 시점부터 화자가 접지하고 있는 ‘올 해’까지, (17b)에서는 첫 시험부터 화자가 접지하고 있는 세 번째 시험을 보는 시간까지 정신적 주사가 이루어진다. (17c)에서는 화자가 시간선상 밖에 접지하고 있어 아침과 저녁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주사하고 있다. 또, (17d)에서는 시간선상의 ‘오늘’에 서서 미래의 방향으로 주사가 이루어진다.

- (17) a. 광주에 온 지 **올해로** 십 년이 된다.
- b.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오늘로** 세 번째이다.
- c. 그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한다.
- d. 오늘 **이후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겠다.

한편, [시간 경과]의 ‘-로’는 문장에서 ‘부가어(adjunct)’의 지위에 놓이므로, 동사의 의미와 구문이 상호작용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 경과]의 ‘-로’가 어떤 구문에서 실현되는지 알아볼 필요는 없다.

3.9. [변화의 결과]

[변화의 결과]는 3.2에서 본 [목표지점/방향]과 시뮬레이션 영상의 틀을 공유한다(<그림 10> 참조). <그림 15>는 <그림 10>과 기본적인 밑그림이 같지만, 출발지, 경로, 목표지 등이 실제 공간과 다른 은유적인 영상으로 대체된다. 정병철(2009: 117-168)에 따르면 이는 의미의 확장이 아닌 의미 적용 영역의 확장에 속한다.



<그림 15> [결과]의 시뮬레이션 영상

<그림 15>는 혼성의 결과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시각적인 영상과 그것을 매우는 상태라는 속성은 각기 다른 입력공간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두 그림을 보고 초기 상태에서 결과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가 혼성 공간의 발현 구조로 생겨나기 때문이다.5)

[변화의 결과]의 ‘-로’는 자동사와 결합하여 (18)과 같이 [NP1_{주어} NP2로 VP

변화] 구문으로 실현되거나 타동사와 결합하여 (19)와 같이 [NP1_{목적어} NP2로 VP_{조작}] 구문으로 실현될 수 있다. [NP1_{주어} NP2로 VP_{변화}] 구문에는 [변화]를 동반하는 동작, [NP1_{목적어} NP2로 VP_{조작}] 구문에는 [조작]을 수반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가 적절하다는 제약이 있다.

- (18) a. 영희가 현숙한 처녀**로** 성장했다.
- b. 체온이 드디어 37도**로** 떨어졌다.

- (19) a.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중앙아시아 금융의 메카’**로** 만들 계획
- b. 이들은 이 문제를 조선성리학계의 최대 쟁점**으로** 끌어냈다.

(18b)의 예문을 [목표지점/방향]의 ‘-로’가 사용된 예문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다.”와 비교해보자. 둘 다 공간 이동 동사가 사용되어 [변화의 결과]와 [목표지점/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더욱 잘 보여준다. (19b) 역시 ‘끌어냈다’가 조작 대상의 공간 이동을 내포하여 [목표지점/방향]으로 사용되는 ‘-로’와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3.10. [관점]

‘-로’의 마지막 확장 의미로 소개되는 [관점]이 발생한 과정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관점]이 [경로]를 연결해 줄만한 경험적 토대는 생각해 내기 어려웠다. 사실, 의미 구획이 정교하게 되어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항목에도 [관점]은 들어있지 않다. 과연, 이 의미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한 것일까?

문제의 실마리는 ‘-로’가 [관점]으로 사용될 때의 구문적 특징에서 발견된다. (20)의 ‘물질적으로’, ‘근본적으로’처럼 [관점]의 ‘-로’는 모두 형태소 ‘-적(的)’에 뒤따르는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 이런 특성은 다른 확장 의미에서는

5) <그림 15>의 해석 원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설명은 정병철(2009: 155-160)을 참조. 여기에서 Fauconnier(1997)나 Fauconnier & Turner(1998)의 원론적인 주장에 대해 약간의 수정을 제안하기도 한다.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21)에 나타난 [NP적 관점으로 보-] 구문은 [NP적으로] 구문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 (20) a. 영수는 물질**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이다.
 b. 이간은 이런 곳에서 우주만물이 모두 근본**적으로** 도덕적임을 느꼈던 것일까?

- (21) a. 동양 신화**적** 관**점으로** 본 이웃집 토토로의 분석
 b.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 한 미 FTA

[NP적 관점으로 보-]가 문법화를 거쳐 [NP적으로] 구문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관점]은 ‘-로’의 의미 중 유일하게 동반경험의 토대 없이 발생한 확장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과연 ‘-로’의 확장 의미로 볼 수 있을까? 엄밀하게 따진다면, [관점]은 ‘-로’가 아닌 ‘-적으로’의 의미로 등록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21)의 ‘-로’는 [수단/도구]로 사용된 것이므로, 의미 발생의 역사적 과정을 고려한다면 [관점]의 ‘-적으로’는 [수단/도구]에 연결된다.

4. 요약과 결론

<그림 16>은 3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본 ‘-로’의 의미망이다. 각각의 의미 마디에 표시된 숫자는 기본 말뭉치로 사용된 100개의 용례 중에서 각각의 의미가 출현한 횟수를 나타낸다. 우선, 비록 100개의 용례이긴 하지만, 이 의미망을 빠져나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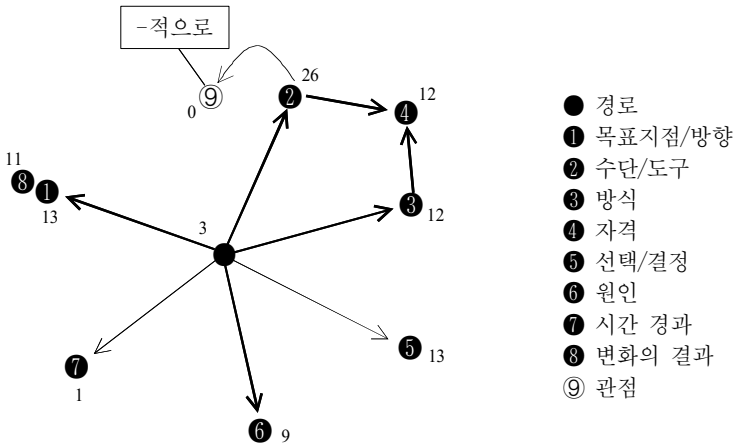
사용 빈도가 1%에 불과한 <⑦>은 26%를 차지하는 <②>보다는 장기기억에서의 입지가 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의미<●> 역시 빈도가 3%에 지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낮은 사용 빈도를 동반경험이라는 경험적 토대가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 빈도만으로 의미 마디의 입지를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

<④ 자격>은 <② 수단/도구>와 <③ 방식>을 기본의미로 해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의미망의 기본의미와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2차적인 확장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은 <②>나 <③>이 일반적인 다의어의 기본의미와

동등한 수준으로 확고히 장기기억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의 빈도가 전체의 26%로 현저히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8 변화의 결과>는 <1 목표지점/방향>과 의미 발생의 경험적 토대를 공유하므로 같은 의미 자리에 표시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 두 의미는 의미의 적용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인해 편의상 구분된 것이다.

<9 관점>은 ‘-로’의 기본의미나 다른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며, 또한 [NP적으로]라는 구문의 의미로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뛰어난 화살선과 동그라미 색의 차이, 그리고 글상자를 사용해 표시하였다.



<그림 16> ‘-로’의 의미망

[경로]가 기본의미 <●>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모든 확장의미들이 발생하는 상황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전체 확장 의미들은 기본의미와 동반 경험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으며, 이로써 전체 의미망 구조는 오랜 시간을 거쳐도 언어공동체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언어공동체와 공유하는 자연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반복되는 동반경험들은 하나의 기본의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확장의미들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강화해준다. 또, 대부분의 확장의미들은 기본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의미망을 구성하는 개별 의미들은 각각의 의미에 적합한 구문과 상호작용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의미 마디에 따라 고유하게 상호작용하는 구문들의 묶음이 있다는 것이다.

‘-로’의 의미망 구조나 개별의미가 구문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정병철(2009)에서 밝혀진 동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소위 어휘적 형태소와 문법적 형태소 모두 적절한 의미망 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통합’의 의미는 이 글에서 사용된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이론적 정합성과 실제에의 적용이라는 목적의 통합, 심리적 구조와 현상적 구조라는 설명 대상의 통합, 그리고 의미에 대한 설명과 형태에 대한 통합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의미에 대한 설명과 형태(혹은 구문)에 대한 설명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앞으로 통합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통합의 강도도 더 긴밀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I-‘격 개념’과 조사 ‘-가’와 ‘-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김영희(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분포와 기능을 중심으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271-311.
- 민현식(1982), “현대 국어 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낙천(2006), “국어 조사의 범주와 의미”, 한국언어문화 30, 한국언어문화학회, 125-146.
- 이남순(1998), “격표지의 비실현과 생략”, 국어학 31, 국어학회, 339-360.
- 임동훈(2002), “한국어 조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149-182.
- 임지룡(2007), “신체화에 기초한 의미 확장의 특성 연구”, 언어과학 40, 언어과학회, 1-31.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지룡·정병철(2009), “의미망 분석과 다의성 판정의 원리”, 담화와 인지 16-3, 담화언어학회, 195-216.
- 임흥빈(1987), 국어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정병철(2009), 시물레이션 의미론에 기초한 동사의 의미망 연구, 한국문화사.
- 정병철(2010), “시물레이션 모형에 의한 한국어 보조동사의 의미 해석 과정 연구”, 한국어 의미학 31, 한국어 의미학회, 249-282.
- 최동주(1997), “현대국어의 특수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 국어학 30, 국어학회, 201-224.
- 최재희(1999), “국어의 격표지 비실현 현상과 의미 해석”, 한글 245, 한글학회, 49-78.
- 홍기선(1994), “한국어 대격의 의미”, 언어 19-1, 한국언어학회, 287-311.
- Anderson, J. R.(1976), *Language, memory and though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hlsén, Elisabeth.(2006), *Introduction to Neuro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arsalou, Lawrence W.(1999), "Language comprehension: archival memory or preparation for situated action?", *Discourse Processes*, 28, 61-80.
- Bergen, Benjamin., Shweta Narayan., & Jerome Feldman.(2003), "Embodied verbal semantics: evidence from an image-verb matching task", *Proceedings of the Twenty-Fif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 Bergen, Benjamin & Chang, Nancy.(2005), "Embodied Construction Grammar in simulation-Based Language Understanding", In Jan-Ola Östman and Miriam Fried(eds.), *Construction Grammars: Cognitive Grounding and Theoretical Extensions*, 147-190.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uccino, G., Binkofski, F., Fink, G., Fadiga, L., Fogassi, L., Gallese, V., Seitz, R., Zilles, K., Rizzolatti, G., & Freund, H.(2001), "Action observation activates premotor and Parietal areas in a somatotopic manner: an fMRI study", *European Journal of Neuroscience* 13(2), 400-404.
- Fauconnier, Gilles.(1997),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uconnier, Gilles and Turner, Mark.(1998), "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s." *Cognitive Science*, 22(2): 133-187.
- Fillmore, Charls J.(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and Harms (Ed.):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88.
- Fodor, Jerry.(1979), *Representations: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Cognitive Science*, Harvard Press (UK) and MIT Press (US).
- Glenberg, A. M. & Robertson, D. A. (2000), "Symbol grounding and meaning: A comparison of high-dimensional and embodied theories of mean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3, 379-401.

- Johnson, Mark.(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University of Chicago.
- Kourtzi, Zoe & Kanwisher, Nancy. (2000), "Activation in Human MT/MST by Static Images with Implied Motio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2-1, 48-55.
- Langacker, Ronald W.(2002),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second edition.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Langacker, Ronald W. (2005), "Construction Grammars: Cognitive, radical, and less so", In Francisco J. Ruiz de Mendoza Ibáñez & M. Sandra Peña Cervel (eds), *Cognitive Linguistics: Internal Dynamics and Interdisciplinary Interaction*, 101-159.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 Langacker, Ronald W.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onald W.(2009), *Investigations in Cognitive Grammar*.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Narayanan, Srinivas.(1997), KARMA: Knowledge-based Action Representations for Metaphor and Aspect. Unpublished UC Berkeley Ph.D. Thesis.
- Newell, Allen. (1990), *Unified theories of cogn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ewell, Allen. & Simon, Herbert A.(1972), *Human problem solv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Pavlov, I. P. (1927), *Conditioned Reflexes: An Investigation of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the Cerebral Cortex* (translated by G. V. Anrep).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hepard, R. N. & Metzler, J.(1971), "Mental rotation of three-dimensional objects", *Science* 171, 701-703.
- Talmy, Leonard.(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Shopen, Timothy (ed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Volume 3, 57 - 14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ttamanti M., Buccino G., Saccuman M. C., Gallese V., Danna M., Scifo P., Fazio F., Rizzolatti G., Cappa S. F. & Perani D.(2005), "Listening to action-related sentences activates fronto-parietal motor circuit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7(2), 273-281.
- Tyler, Andrea. & Evans, Vyvyan.(2004),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경상북도 상주시 가장동 386번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4호관 307호
742-711
전화 번호: 054-530-1902
전자 우편: chorri@daum.net

원고 접수일: 2010년 7월 10일
원고 수정일: 2010년 8월 9일
계재 결정일: 2010년 8월 23일